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2025. 12.

교 육 부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상황 분석	2
III. 개선 필요사항 및 시사점	4
IV. 정책 추진 방향	7
V. 세부 추진과제	8
1.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8
2.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10
3.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12
4.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15
5.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16

I. 추진 배경

□ 마음건강 지표 악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추진

- 최근 학생 마음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불안/외로움 경험율(%): ('20.) 11.2 → ('24.) 14.1 / ('20.) 14.1 → ('24.) 18.8

- 교육부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24.1.)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수립('24.8.)하여 대응

- 그러나, '24년 자살 학생 수는 '23년 대비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 방안을 보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자살 학생 수(명): ('20.) 148 → ('21.) 197 → ('22.) 194 → ('23.) 214 → ('24.) 221

□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후속으로 지원 방안 수립

- 정부는 국정과제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101-5)”*을 설정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추진

* (주요내용) 마음건강 지원기반 마련,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전문상담인력 확대 등

- 또한, 전 국민에 대한 자살예방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2025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 중

- 이에 국정 기조에 부응하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범정부 전략의 대상별 방안으로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 기존 방안의 한계를 보완한 학생과 현장 중심의 방안 마련 필요

- 그간의 정책으로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노출

- 학생 마음건강 악화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 방안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학생과 현장 중심의 방안 마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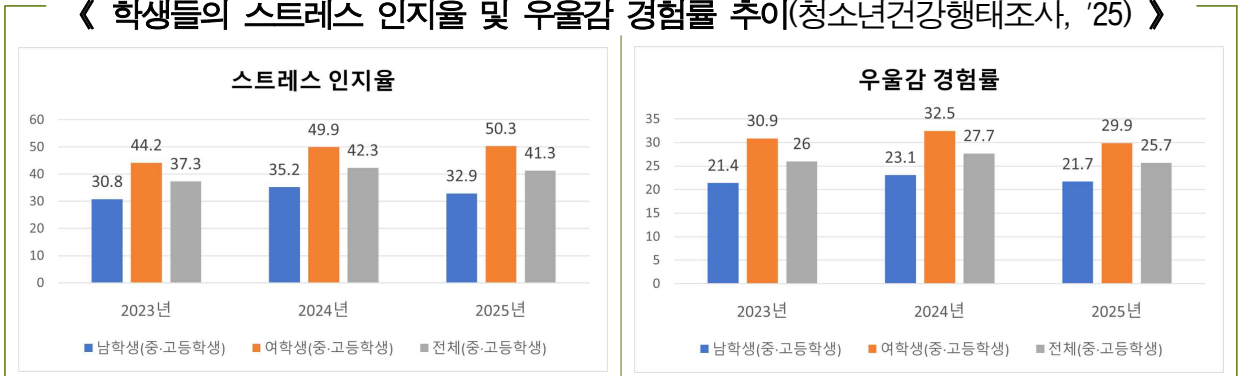
II. 상황 분석

□ 학생 마음건강 관련 지표

-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24년 대비 '25년 감소 하였으나,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스트레스 인지율(%) : ('23.) 37.3% → ('24.) 42.3% → ('25.) 41.3% (전년 대비 1.0%p 감소)
 우울감 경험률(%) : ('23.) 26.07% → ('24.) 27.7% → ('25.) 25.7% (전년 대비 2.0%p 감소)

〈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추이(청소년건강행태조사, '25) 〉



※ 스트레스 인지율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적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우울증 진료 환자 수(0~19세) : ('19.) 5.3만 명 → ('23.) 8.1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학생 상담 및 긴급지원팀 운영 결과

- 위(Wee) 센터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학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파악

〈 2024년 위(Wee) 센터 상담실적 현황 (단위 : 건) 〉

상담분야	정신건강	정보제공	대인관계	학업/진로	일탈/비행	성격	기타*	계
건	142,682	68,466	63,478	59,856	58,997	38,256	49,192	480,927
비중(%)	29.7	14.2	13.2	12.4	12.3	8.0	10.2	100

* 가족, 활동, 성, 컴퓨터/인터넷 사용, 생활습관/외모, 법률정보 등

- 비대면 상담 채널 '다들어줄게' 상담 실적에서도 동일하게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 학업·진로에 대한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

〈 2024년 다들어줄게(문자) 상담실적 현황 (단위 : 건) 〉

상담분야	대인관계	정신건강	자살/자해	학업/진로	가족	폭력/학대	성/중독	계
건	24,978	15,008	7,486	7,448	7,314	2,311	1,313	65,858
비중(%)	37.9	22.8	11.4	11.3	11.1	3.5	2.0	100

-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 초기평가에 의하면, 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주로 우울, 대인관계, 자해/자살이며, 학교급별 양상이 상이
 - 초등학생은 관계 문제와 행동 통제 및 집중력 문제(충동성, 주의산만, 공격 및 문제행동 합계 28.1%)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중학생은 정서적 어려움(우울)과 자해/자살이 높고, 고등학생은 우울과 자해/자살이 더욱 심화되어 전체 중 약 39.2%를 차지

〈 2024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초기평가 시 주 호소문제 (단위 : %) 〉

구분	우울	대인관계	자해/자살	불안	충동성	주의산만	가정환경	공격 및 문제행동	학습	기타
초	9.4	15.3	5.0	9.4	12.1	14.3	6.8	10.7	6.6	10.5
중	17.3	14.6	16.6	9.2	6.2	4.2	7.7	5.0	4.1	15.0
고	20.7	14.6	18.5	13.5	5.5	2.9	6.4	2.5	3.0	12.5
합계	15.0	14.9	12.5	10.4	8.3	7.9	7.0	6.6	4.8	12.6

□ 학생사망사안보고서 분석 결과

- 학생 자살 원인을 추정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24년 학생 자살 학생 사망 추정원인 (단위 : 건) 〉

구분	가정문제	경제문제	신체질환	정신과적 문제	학업진로 문제	대인관계 문제	문제행동 발각	기타	원인 미상	합계
초	3	0	0	1	1	0	1	0	2	8
중	33	3	2	21	14	13	4	13	22	125
고	38	0	5	48	34	26	3	29	39	222

※ 교사가 작성한 학생사망사안보고서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중복 응답 가능

III. 그간의 정책 대응 및 개선 방향

I 그간의 정책 대응 및 한계

□ 선별검사 체계

- 초1·4, 중1, 고1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정기 실시 및 수시 마음EASY검사를 도입(24.~)하여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마음EASY검사에 대한 현장 인식이 부족하여 조기 발견 공백 발생

□ 위기학생 지원

- 학내 상담실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대상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 및 마음바우처를 통해 치료 연계
- 학내 상담만으로는 고위기 학생 대응이 어렵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에는 한계
- 학생 마음건강 악화 원인이 복합적임에도 근본적 스트레스 유발 원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사후적 조치에 집중

□ 사회정서교육

- 모든 학생 대상으로 자살예방뿐 아니라 감정인식 및 조절, 관계 관리 등을 포함하는 마음건강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도입
- 사회정서교육 차수가 적고, 국가수준 표준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시도교육청별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내용 등이 상이

□ 상담 정보 기록·연계

-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상담 후 실적을 수기로 관리하고, 고위기 학생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타 기관 연계 및 학생 정보 제공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학생 진급·전학 시 정보 연계가 어렵고, 사용 시스템 차이 등으로 타 기관과 정보 공유 미흡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결과

- (학생) 차관 주제 현장 간담회, 청소년 리더 간담회, 위(Wee) 희망대상 수상자 간담회, 학교 방문 면담(3회) 등 의견 수렴

현장의 목소리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대인관계에서 비롯 ▪ 학생만이 아닌 교사·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병행 필요 ▪ 치료를 받고 복귀하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지원이 중요 ▪ 학생이 상담을 신청·이용하기 어려운 환경(낙인효과, 시간 등) 개선 ▪ 학교 상담 외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교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보장
-----------	--

- (교원) 학교 관리자, 교원 간담회 개최, 각 사업별 현장지원단 및 교사연구회 간담회 등 추진

현장의 목소리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사 학교당 1인 확보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필요 ▪ 지역 기반 학부모 교육 및 부모 상담 접근성 제고 필요 ▪ 사회정서교육 시수 보장을 통한 활성화 필요
-----------	--

- (학부모) 전국 학부모 정책모니터링단 대상 서면 의견 청취, 학부모 대면 간담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Wee) 클래스 이용에 대한 부담(낙인효과, 정보유출) 완화 필요 ▪ 형식적 자살예방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이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정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회정서교육 필요 ▪ 학생정서·특성검사 외에 심층적 심리검사 도구가 필요하며, 마음 EASY검사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활성화 필요 ▪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상담·치료를 반대하는 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학부모 미동의 시에도 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

- (전문가)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정신건강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 및 서면 의견 청취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 지원 강화 필요 ▪ 교육 정책과 학생 정신건강을 연계할 수 있는 조사 등이 부재하므로 이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 존재 ▪ 위기 단계별 표준화된 서비스를 위한 연계 체계 필요
------------	--

Ⅱ 개선방향

□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학교의 역량을 넘어서는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문 치료가 필수적이므로 치료 접근성 강화 필요
-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으므로, 일상 및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학생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상담 환경 조성

- 낙인효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학내 적기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상담교사 확충 및 위(Wee) 클래스 여건 개선이 요구
-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및 상담 선택권 보장 필요

□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중요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관계 형성 지원과 함께 행동 조절 능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사회정서교육 등의 예방 교육이 중요
-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연계와 심층적인 심리 지원 강화가 필요

□ 마음건강 악화 요인 파악 및 학생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학생 마음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 도입 필요
-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패러다임 필요

IV. 정책 추진 방향

비전

다층적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사회 구현

목표

- '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 '30년까지 고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 100% 달성
- 긴급지원팀 100개 설치로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지원

추진 과제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고위기 학생 치료 연계 강화

▲ 긴급지원팀 확충 ▲ 마음바우처 확대 ▲ 긴급지원 제도 시행 ▲ 고위기 학생 의뢰·관리

일상 회복 및 복귀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조력인 제도 도입 ▲ 멘토링 시행 ▲ 고위기 가정 지원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학내 상담 환경 강화

▲ 상담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 상담 공간 개편 ▲ Wee 센터 개선

학교 밖 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 전화상담 개통 ▲ 학부모 상담 추가 ▲ SNS 상담 운영

학생 상담 정보 기록·관리 체계 개선

▲ 학교 상담기록 표준화 및 관리 ▲ 학생 이동 시 상담정보 연속성 확보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잠재적 위기학생 조기 발견

▲ 선별검사 확대 ▲ 마음EASY 셀프 검사 도입

사회정서교육 확산으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 교육과정 재구조화 ▲ 사회정서역량 진단 ▲ 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마음건강 악화 위기요인 파악 강화

▲ 실태조사 시행 ▲ 학생 심리부검 도입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간 연계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법, 예산, 인력 등 지원 기반 강화

▲ 법률 제정 ▲ 재정 지원 ▲ 인력 보강

거버넌스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자살 급증지역 집중 관리 ▲ 협의체 강화 ▲ 수요자 중심 홍보

V. 세부 추진과제

1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 고위기 학생 치료 연계 강화

- (긴급지원팀 확충) '30년까지 고위기 학생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 100개 설치('25. 56개)로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지원

※ 교육지원청 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팀은 교육지원청 통합 모델도 운영

《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개요 》

- (구성)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 (역할) 긴급지원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위기학생 병·의원 연계, △비협조 학부모 설득, △교직원 대상 위기상황 대응 연수 등 지원
- (현황) '25년 기준 전국 56개 긴급지원팀 운영 중

- (마음바우처 확대) 위기학생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병원 진료비 외 외부 전문 기관 상담비까지 지원 범위 확대('26.~)

* (현행) 자살시도·자해학생 정신과 진료·치료비 → (개선) 위기학생 상담비 지원 추가

- (긴급지원 제도 시행)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상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제도' 시행('26.3.~)

* 학교장의 상담 및 치료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실시하며, 관련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26.3.)

(기존) 긴급지원 제도 시행 전	(향후) 긴급지원 제도 시행 후
▶학부모의 협조 없이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곤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권고 및 지원 ▶①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미이행, ②학교생활 현저한 어려움 등 필요성 →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 연계 등 긴급지원

- (고위기 학생 의뢰·관리)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보 전달 및 통합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상담·치료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위(Wee) 센터·스쿨,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평등가족부) 등

□ 일상 회복 및 복귀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조력인 제도 도입) 교원 또는 보호자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위기 학생 대상 ▲제도 안내, ▲상담 또는 관계맺기, ▲정서회복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 인력으로 '학생 정서·행동 지원 조력인' 제도 도입
 - ※ 퇴직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봉사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구성을 활용하되,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및 모델 발굴 등을 거쳐 단계적 도입 추진(26.~)
- (멘토링 시행) 심리·상담 관련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기 학생 간 매칭을 통해 학습, 체육, 예술, 여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멘토링 사업 도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도입) 고위기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지역 또는 마을 단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도입

참고

지역별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서울)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여가활동(영화, 식사 등)을 하면서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익명성이 보장되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음
- ☞ (경기 안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자원봉사자, 심리전문가 등 구성) 희망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예 : BBQ 식사,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마음건강 증진 효과성이 높음

- (고위기 가정 지원) 가족센터 연계 등을 통해 가정환경 변화없이 위기학생 개선이 어려운 경우 부모 동의를 기반으로 특별 프로그램 지원

참고

고위기 가정 지원 사례

- ☞ (울산) 전문 치료팀이 주2회 이상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방문해 고강도 집중 상담 및 사후 관리하고, 개인상담·부모양육기술훈련·사회성기술훈련 등 진행(4개월 소요)
- ☞ (대구) 정기적으로 전문의가 학부모를 만나 대인관계, 정서관리, 자녀양육, 일상생활 건강한 습관 형성 등에 대한 간담회 실시(학부모 신청 기반)

2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내 상담 환경 강화

- (상담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 증원, 정원 외 채용 등을 통해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확보
- (상담인력 역량 제고) 전문상담인력의 위기징후 조기발견 및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체계 기반 연수과정 운영*
 - * '학교상담 리더 연수'를 통해 '25년부터 매년 200명 내외의 선도인력 양성 추진
- (위클래스 접근성 개선) 낙인효과 완화(내담 안내방식 개편, 인식개선 활동 등), 공간 재구조화* 등을 통한 위클래스 접근성 개선 추진
 - * ▲이중 구조화(예)상담실+라운지), ▲출입동선 노출 최소화, ▲자유 이용시간 설정 등 상담실 공간 예시모델 발굴 및 안내('26.下~)

현장의 목소리 위클래스 이용 학생 면담

- ☞ "상담실 방문 사실에 주목하고 문제시하는 학교 문화 개선 필요"
- ☞ "학교 상담실이 누구나 필요할 때 방문하여 심리·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

- (위센터 기능 강화) ▲학교 지원(컨설팅, 연수 등) 확대, ▲전문기관(병·의원, 상담센터 등) 연계·협력 강화, ▲학생·학부모 접근성 제고, ▲조직·인력 개편 등을 통한 위(Wee) 센터 기능 개선 지원*

* 시범 위(Wee) 센터 운영 사업 참여 교육청 확대: ('25.) 9개 교육청 → ('26.) 17개 교육청(목표)

《 '26년 위(Wee) 프로젝트 확대·개편 시범사업 주요 추진과제(안) 》

- ① 위클래스 설치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관내 위클래스 설치 확대를 통한 학교 내 상담기반 강화
 - 방문 낙인효과 완화, 공간 재구조화 등을 통한 위클래스 접근성 개선
- ② 학생 마음건강 허브기관으로서 위센터 역할 정립
 - 위기사안 지원을 위한 학교 컨설팅, 교사연수, 자문 등 확대
 - 지역 내 유관기관(병·의원, 상담센터, 긴급지원팀 등)과의 연계·협조 체제 구축
 - 학생 대상 직접 서비스 및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확대
- ③ 복합 지원기관 확충 등 조직·인력 개편
 - 병원형·가정형 위센터, 위스쿨 등 교육-치료 복합 지원기관 운영 확대
 - 행정인력 확충, 고경력 상담인력 확대 등을 통한 위센터 전문성 제고

□ 학교 밖 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 (전화상담 개통) 문자상담 서비스(‘다들어줄게’)에 전화상담망을 신설, 내담 학생의 선호 및 여건을 고려한 상담 채널 다각화

현장의 목소리 **다들어줄게 상담사 면담**

☞ “내담 학생이 문자 상담 중 전화 상담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문자상담 시스템 및 인프라 여건상 전환 불가능”

- (학부모 상담 추가) 문자상담 서비스(‘다들어줄게’) 이용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가정 내 이해와 소통에 기반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
- (SNS 상담 제공) 교육부-삼성금융네트웍스-한국생명의전화가 협업으로 구축한 ‘라임(Lime)’을 통해 만 9세~24세 청소년 SNS 상담 제공

□ 학생 상담기록·관리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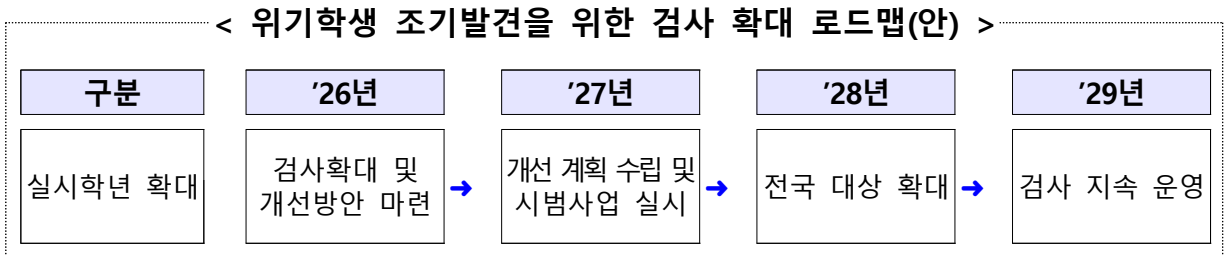
- (상담기록 표준화) 학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여 상담의 체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기징후에 대한 대응력 제고
 - * [표준화안(예시)] 상담일시, 인적정보(고유식별번호, 성별, 학년/반), 주 호소문제, 특이사항(자해경험, 한부모가정 등), 상담경과(상담횟수, 타 기관연계 등) 등 포함
- (상담기록 수집·관리) 학생·학부모 동의에 기반, 학생 상담기록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 '26년 법령상 근거 마련, 기존 시스템 활용가능성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7년 추진
- (기관·분야 연계) 타 학교(전학·진학), 타 지원분야(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로 상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 학습, 복지, 건강, 진로 등 사업별·분야별 지원 체계를 학생 중심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맞춤형 지원 및 지속 관리

(기존) 개별화된 관리체계	(향후) 관리체계 표준화·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된 작성양식 부재(예시 안내) ▶NEIS시스템을 통해 상담일시, 학년, 성별 등 최소한의 내용만 기록·관리 ▶학생 전학·진학 시 정보 미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기록 작성양식 표준화 ▶내담 학생 인적정보 및 주호소문제 등 주요내용을 수집·관리(정보주체 동의기반) ▶타 기관 및 분야간 상담정보 연계

3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 잠재적 위기학생 조기 발견

- (선별검사 확대)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현행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선별검사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하게 시행
 -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6년까지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실시 학년 확대에 따른 검사 시행 및 결과 처리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검사, 검사 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등 검토



- (마음EASY 접근성 강화) 필요한 학급에서 마음EASY검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원 및 교육청 대상 홍보 강화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마음EASY 셀프(self) 검사 도입 검토

현장의 목소리 학생 간담회

- ☞ "선별검사 후 학교나 가정으로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상황이 부담되어 우울하지 않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음"
- ☞ "학생들 성장 과정에 맞춘 정서 검사 확대와 부모·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검사 필요"

- (마음EASY 선도학교 운영) 전교생 대상 매년 마음EASY검사를 실시하여 대인관계, 학교적응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선도학교 운영('26.下~)

□ 사회정서교육 확산으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 (교육과정 재구조화) 기존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6차시)을 교육 목표, 영역, 학교급별 내용 요소, 성취기준 등 체계를 갖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26.1.~)

《 교육과정 재구조화 주요 개선사항 》

현행(2025)	개선안(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안전(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내 6차시 활동으로 구성 → 연속성, 계열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육에 한계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 준용 → 인성교육, 어울림프로그램 등 유사주제와 차별성이 불명확 	<p>기존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소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수준 교육과정 체계로 재구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가수준의 사회정서 교육과정 전체의 틀 마련 • 학생들이 학교급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열성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 성취기준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방향 제시 </div>

현장의 목소리 교원 간담회

☞ “기존 6차시 프로그램은 활동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정규교육에서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영역-핵심역량-하위요소-목표 등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 문서가 필요함”

- (사회정서역량 진단)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해당 시기에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을 구인별로 진단할 수 있는 ‘가침마음 나침반 개발·보급’(27.上~)
- ※ (활용 예시) 학생 개인의 사회정서 역량을 구인별로 진단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가정에서의 맞춤형 사회정서교육 지원 강화

《 가침마음 나침반(예) 》

학년군 : 초등 1~2학년				
핵심아이디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과정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역량	범주	내용요소	문항	진단
소통·협력	관계	친구관계	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말할 차례를 지킨다	

현장의 목소리 사회정서교육 중앙현장지원단 협의회

☞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회정서역량이 다른데,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 학생 특성을 파악해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것임”

- (맞춤형 콘텐츠 제작) 모든 교사가 사회정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26.1.~)
 - ※ △담임교사 아침대화 콘텐츠 120종, △교과 및 범교과용 콘텐츠 24종
- (현장연구 지원) 현장적합성 높은 사회정서교육 모형* 개발 및 우수 실천 사례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교사연구회 지원(‘26.3.~)
 - * (예)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 입학 초기 및 전환기 프로그램용 사회정서교육 모형
-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부-시도-학교 간 소통을 위한 중앙 및 지역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수요를 적기 반영한 교육지원 강화(‘26.4.~)
 - ※ (주요역할) △시도별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회정서교육 운영 컨설팅, △정책 내실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선도교사 연수강의 지원 등
- (공유플랫폼 구축) 에듀넷(edunet.net) ‘사회정서교육’ 메뉴 신설을 통해 교육 콘텐츠, 컨설팅사례 등 다양한 자료 보급(‘26.1.~)

현장의 목소리 **교원 간담회**

☞ “사회정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모든 교사가 참여하려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다양한 운영 모델의 개발 보급이 필요함”

- (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사회정서교육 정책 이해 및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범사회적 확산
 - 사회정서교육을 내실있게 도입·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선도교사 양성(‘26.上, 1,500명 예정)
 - 학교관리자의 사회정서교육 정책 이해 연수콘텐츠 개발 및 교장자격 연수과정 내 ^{가칭}학생마음건강 과목 신설 추진(‘26.下~)
 - 학부모, 사회정서교육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가정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26.下~)

현장의 목소리 **교원 간담회**

☞ “학교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교사 입장에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운 현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법을 알려주고, 자녀와의 소통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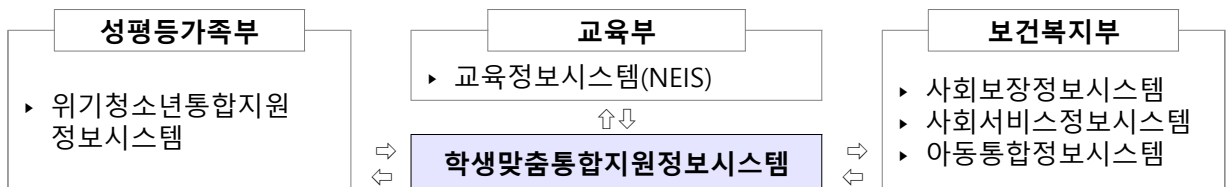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 마음건강 악화 위기요인 파악 강화

- (실태조사 시행) ▲ 위기학생 현황(위험군, 관심군 등), ▲ 학생 마음건강 저해요인 및 주 호소문제, ▲ 학내외 지원 인프라 및 인력 배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표준화된 실태조사 도입 추진
- (사안보고서 개선) 학교 교사가 자살원인을 추정하여 작성하는 현행 학생자살사안보고서 문항과 작성 방식 개선('26.上~)
- (학생 심리부검 도입) 명확한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해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학생 심리부검 도입('26.下~)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별·분절적 지원·관리에서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학교,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 *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26.3.~)하고,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 어려움 지원 및 학생 변화 지속 관리
 -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자원 발굴·연계 활성화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시·도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의사·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 (정보시스템 구축) 여러 부처가 보유한 학생 정보 등을 연계*하여 지원대상 발굴 및 단절 없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8.下 개통)
 - *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 연계



□ 법, 예산, 인력 등 지원 기반 강화

- (법률 제정) 국가, 지자체 등 주체별 책무성 확보, 관련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주요 내용(안) 》

- (주체별 책무성) 국가·지자체의 시책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의무, 학교의 학내 교육환경 조성, 보호자 협조 의무 등 주체별 책무 명시
- (정책 추진체계) 관련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운영(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식개선 활동 등) 근거 등 마련
- (지원 기반) 사회정서교육 실시, 위기학생 선별, 학교 상담체계, 지역 내 인프라*, 교원 연수 등 학내외 지원 기반 구체화

* ▲학교 상담 및 연계 지원기관,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학교방문 지원기관 등

- (재정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를 신설, 보통교부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26.~)
- (인력 보강) 향후 17개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에 자살예방 담당자 1명을 반영하여 책무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강 추진

□ 자살 급증지역 집중 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 (자살 급증지역 집중 관리)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 자살학생 수,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 등을 확인하여 자살 급증 시도교육청은 현장점검 추진
- (중앙부처 협의체)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학생,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총괄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협의회)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협의회 운영

□ 대국민 인식 개선

- (수요자 중심 홍보) 학생 마음건강 정책에 대한 주체별(학생, 학부모, 교원) 주요 전달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 소통·홍보
 - * △(학생·학부모) 상시검사로 조기 발견, 위기상황별 맞춤 상담, 경제적 부담 경감
 - △(교원) 업무 경감,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현장 안착 지원)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 현장 직접 소통 및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로 현장 안착 지원

《 2025년 학생 마음건강 SNS 홍보 내용 》

			
키메시지 공모 이벤트	선정된 키메시지 로고	사례 공유 이벤트	인스타툰 예시

- (합동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하여 학생·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홍보 추진 체계도 》

홍보목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정책 효과 및 긍정 여론 확산		
홍보대상	학생·학부모, 교사, 교육청	학생	지역사회, 기관, 전 국민
핵심메시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현장의견 반영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및 QnA 등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홍보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동영상·현장 체험활동 지원 이해와 동참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 소통 창구 구축

참고

정책 변화 방향

구분	현재	향후
긴급지원팀	전국 56개의 긴급지원팀 운영	☞ '30년까지 긴급지원팀 100개 설치로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지원
마음바우처	자살시도·자해학생 정신과 진료·치료비	☞ '26년부터 정신과 진료·치료비 + 위기학생 상담비 지원
학부모 미동의 학생 상담·치료	미동의 시 상담·치료 불가	☞ '26년 3월부터 학교장 상담 및 치료권고 →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
일상 회복 지원	고위기 학생 일상 회복 및 학교 복귀 지원 미흡	☞ 조력인 제도(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으로 근거 마련) ☞ 멘토링, 지역 연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27년)
학내 상담	전문상담인력 부족	☞ '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학교 밖 상담	문자상담만 제공	☞ 전화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추가('27년)
선별검사	3년 주기 정기 선별검사	☞ 위기 학생이 더욱 촘촘하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26년까지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 ☞ '30년까지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 100% 달성
예방교육	선택적 6차시 사회정서교육 시행	☞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이상으로 확대('26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학생 관리정보	전학 및 진학 시 미연계	☞ 관리서식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학 및 진학 시에도 관리정보 연계 ※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으로 근거 마련
마음악화 위기 요인 파악	객관적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미 시행	☞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 '26년 정책 연구 → 학생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후 추진 ☞ '26년 하반기부터 학생 심리부검 시행으로 면밀한 원인 파악
위기학생 지원	학생의 위기유형에 따라 각 사업별 개별 지원	☞ '26년 3월부터 학생 개개인 맞춤형 통합 지원